



기타 주요정보

미 상무부, 중국산 수입타이어 반덤핑 판정

07년 6월 미국 Titan 타이어사와 미 철강노동자협회는 공동으로 중국산 OTR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미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. 이에 대해 지난 7월 8일 미 상무부는 중국정부가 중국의 OTR 타이어 수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최종 결정짓고 중국의 해당 OTR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제안하였다.

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따르면, 대미국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시장에서 OTR 타이어를 정상가격보다 210.48%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2.45~14%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. 미 상무부의 중국 OTR타이어 제조사별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ITC의 미국 내 타이어 제조업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다시 거쳐, 미국 내 타이어 업계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만큼 위협적이었다고 판정되면 비로소 발동된다. ITC의 최종 판정은 8월 21일경에 공포될 예정이다.

미 상무부의 조사결과, 중국의 'Guizhou Tyre / Guizhou Advance Rubber', 'Hebei Starbright Tire', 'Tianjin United Tire & Rubber International' 그리고 'Xuzhou Xugong Tyre'가 각각 4.08%, 19.15%, 8.09%, 0%의 최종 덤핑률을 받았다. 나머지 25개 수출사는 9.48%의 별도 덤핑률을 부여받았으며, 모든 중국의 다른 수출사에 대해서는 210.48%의 덤핑률이 적용되었다. 또한, 'Hebei Starbright', 'Guizhou Tyre' 그리고 'Tianjin'은 각각 14%, 2.45%, 6.85%의 정부 보조 비율을 부여받았는데 모든 다른 중국 수출사에게 적용된 최종 보조금 비율은 5.62%였다.

한편,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, 미국의 중국산 OTR 타이어 수입은 05년에서 07년 사이 11%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, 07년 수입액은 3억 6,000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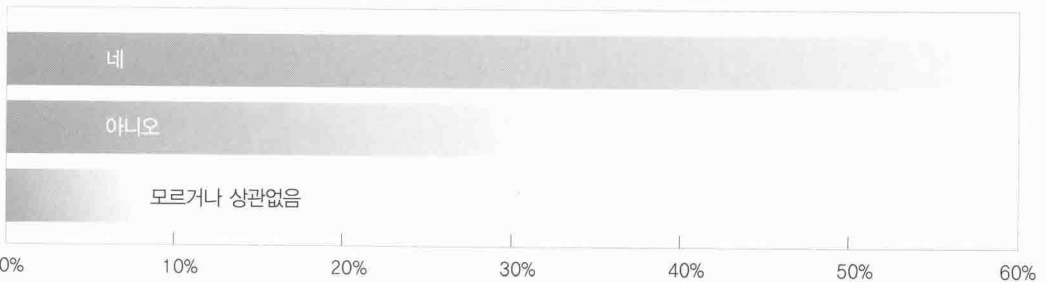
(자료 : 미국 「Rubber & Plastics News」 08.7.28일자)

미국 내 '타이어 마모한계기준'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현재 보편적으로 타이어 마모한계로 쓰이고 있는 2/32인치(1.6mm)가 적정하냐 아니면 4/32인치(3.2mm)가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 연방정부의 이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. 본고는 미국의 유수 타이어 잡지에서 미국 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절한 타이어 마모한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.

미국 타이어 관련 잡지인「Modern Tire Dealer」가 최근에 미국 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투표에 따르면 '4/32인치(3.2mm)가 연방정부의 타이어 마모 기준이 되어야 한다'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가 60%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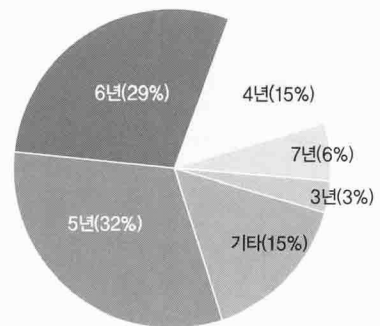
타이어 판매자입장에서,
연방정부의 마모한계 기준으로서 4/32인치에 찬성하십니까?



대리점 자체로 정하고 있는 마모한계 기준 있느냐는 질문에 51%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,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마모한계 기준을 알아본 결과 52.2%가 '2/32인치(1.6mm)', 15.3%가 '4/32인치(3.2mm)', 13.1%가 '3/32인치(2.4mm)' 그리고 나머지 20% 정도가 기타의 마모한계를 답하였다.

더 나아가 교체하기까지 타이어 유효기한에 대한 대리점 자체 내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7%가 그렇다고 답했으며, 이들 응답자들의 자체 기준을 보면 '5년'이 32%로 가장 많았고 '6년'이 29%, '4년'이 15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〈교체까지의 타이어 유효기간 관련 대리점내 자체기준〉



〈자료 : 미국 「Modern Tire Dealer」 08, 6월호〉